



하준영

개막 다가오는데... KIA 불펜은 미완성

다음달 5일 키움과 프로야구 개막전 양현종·가농 등 선발진 완성됐지만 박정수·임기준 부상에 불펜은 전력 공백

‘박하전문’ 막강 전력화엔 시간 필요
하준영·이준영 외 왼손 투수 全無
김명찬·김기훈 1군 진입 ‘시동’
남은 일주일 연습경기서 해답 찾아야



이준영

개막이 다가오면서 ‘호랑이 군단’의 좌완 고민도 커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5월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020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KIA는 미국 플로리다 캠프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흥행전, 그리고 KBO 연습경기를 통해 세 시즌 틀을 짜고 있다. 선발진은 경쟁을 통해 틀이 갖춰졌다.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두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 드류 가농에 이어 이민우와 임기영이 ‘선발 경쟁’의 승자가 돼 선발진에서 2020시즌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는 선발진에 무게감이 더해졌지만 문제는 불펜이다.

서재응 투수 코치는 앞서 스프링캠프에서 ‘불펜’에 먼저 무게를 두고 2020시즌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불펜 강화 전략에 맞춰 전천후 투수 박준표를 올 시즌에도 불펜진에 배치한 서 코치는 ‘해줘야 할 선수’로 두 사이드암 번시원과 박정수, 그리고 좌완 임기준의 이름을 언급했다. 불펜진의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사이드암과 좌완 카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즉, 2019시즌 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 ‘박하전문’이 막강 필승조로 활약을 했지만 확고

한 전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야수진과 선발진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불펜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다.

서 코치가 언급했던 세 선수 중 번시원만 일단 정상 가동되고 있다. 박정수와 임기준은 각각 팔꿈치와 어깨 통증으로 재활조에서 호흡을 고르고 있다.

특히 임기준의 부상은 KIA에 가장 큰 아쉬움이다.

임기준은 지난 2년 동안 102경기에 나와 7승 3패 2세이브 14홀드를 기록하는 등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좌완이다. 하지만 어깨 통증으로 스프링캠프

에 참가하지 못했고, 아직도 재활 중이다.

좌완은 KIA의 오랜 고민이다. 현재 선발진에서도 양현종만 좌완이고, 불펜에서는 이준영과 하준영 두 투수만 왼손으로 공을 던진다.

하준영이 팔꿈치 통증으로 지난 15일 뒤늦게 흥행전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준영이 KIA 유일한 좌완 불펜이었다.

하준영이 재활을 끝내고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지난해의 모습과는 아직 차이가 난다. 여기에 당장 1군에 합류해 힘을 보태줄 좌완이 없다는 점에서 더 불펜 고민이 쌓인다.

팀 상황이 이런 만큼 박홍식 퓨처스 감독도 당당

아 ‘좌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명찬과 김기훈 두 좌완이 1군 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박홍식 감독은 “김명찬은 군 제대하고 나서 완벽한 몸상태가 아니라서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괜찮다. 기대해도 될 것 같다”며 “김기훈도 27일 팀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개막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채워지지 않은 불펜 고민을 안고 있는 KIA가 남은 연습경기에서 답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들어는 봤나... 프로야구 화상 미디어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국내 첫 시도
10개 구단 실시간 연결 온라인 진행
내달 2일 사전 녹화...3일 TV 방송

KBO가 국내 스포츠 사상 최초로 화상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시즌을 맞는다.

KBO는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열리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020 KBO 미디어데이’는 KBS N SPORTS가 제작한 특설 스튜디오와 10개 구단 감독·대표선수 1명이 위치한 각 홈구장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내달 2일 비공개 사전 녹화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SPOTV 및 네이버, 카카오, wavve, Seezn, U+프로야구에서 동시에 방송된다.

미디어데이에는 KIA 맷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10개 구단 감독과 ‘호랑이 군단’의 양현종과 함께 두산 오재민, 키움 김상수, SK 최정, LG 김현수, NC 양의지, KT 유한준, KIA 양현종, 삼성 박해민, 한화 이우규, 롯데 민병헌 등 각 구단을 대표하는 주장 선수들이 출연한다.

감독들의 출사표와 올 시즌 각오, 개막을 앞둔 선수들의 소감과 우승 또는 목표 달성 공약 등을 화상으로 만날 수 있다.

사전에 접수 받은 KBO 리그 취재기자들의 질문은 패널들이 대신 전화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개막 5경기의 선발투수도 공개된다.

팬 이벤트도 마련됐다.

KBO 공식 인스타그램(@kbo.official)에서는 29일까지 10개 구단 주장 선수들에게 보내는 영상 질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디어데이에 출연하는 선수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KBO 공식 인스타그램(@kbo.official)에 DM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선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 KBO 홈페이지에서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개막전 선발투수를 맞추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선발투수를 맞춘 인원 중 구단당 10명씩 총 100명을 추첨해 주장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증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맷 감독 “우리는 144경기 준비 끝”

“엔트리, 불펜·내외야 3자리 결정 안돼...실력 보여줄 것”



KIA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다시 한번 ‘144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KBO 연습경기를 치렀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개막 일이 정해지고 나서 선수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실렘도 많아진 것 같다. 팬들과 코칭스태프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고 개막을 기다리는 마음을 밝혔다.

KBO리그 개막은 늦어졌지만 올 시즌은 원래 예정됐던 144경기 체제로 시작한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령탑들도 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경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144경기에 맞춰 스프링캠프부터 준비를 해왔다. 정해진 것에 맞춰서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을 보였지만 앞선 연습경기에서 KIA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윌리

엄스 감독은 “준비 과정”이라며 느긋한 모습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작전을 많이 구사하지 않고 있다. 상대편이랑 연습 경기에 들어갔지만 선수들이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엔트리 구성하고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남은 경기를 치르겠다. 시즌 개막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주전선수들) 이닝을 짧게 운용하면서 컨디션 유지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남은 연습경기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세 자리’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할 생각이다. 개막전 선발도 아직 지켜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불펜에서 투수 파트가 중요한데 불펜 한자리를 고민하고 있다. 야수에서는 외야와 내야에서 한 명 정도를 보고 있다”며 “양현종과 브룩스 등만이 한 차례 정도 더 남아있다. 좋은 선수에게 개막전을 맡길 생각인데 미디어 데이 때 공식 발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로 가는 K리그

10개국에 올 시즌 중계권 판매...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3곳서도 구매

K리그가 코로나 19 위기를 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7일 “현재까지 세계 10개국에 2020시즌 K리그 중계방송권이 판매됐으며,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3곳에도 영상방송권이 판매됐다”며 “또한 K리그 개막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다양한 국가들에서 중계권 구매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2019년 12월 유럽 소재 스포츠 중계방송권 판매업체인 ‘스포츠레이더’(Sportradar AG)와 K리그 해외중계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레이더’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싱가포르 등 24개 국가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영역은 스포츠 중계방송권 및 데이터 사용권 판매사업과 부정방지서비스 등으로 미국 4대 메이저 스포츠인 MLB, NFL, NBA, NHL, 국제테니스연맹(ITF), 전미스톡자동차경주협회(NASCAR)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계권 및 데이터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맹과 스포츠레이더 간 해외중계권 계약의 기간은 2020년부터 5년. 스포츠레이더는 2024년까지 K리그1, K리그2 및 승강플레이오프의 해외중계권 판매 독점권을 갖는다.

연맹과 스포츠레이더 간 계약 체결 이후로 현재까지 중국, 홍콩 등 아시아와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10개국에 2020시즌 K리그 중계방송권을 구매했다.

싱가포르의 ‘Dugout’, 네덜란드의 ‘433’, 영국의 ‘Copa90’ 등 축구 전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들도 K리그 영상사용권을 구매했다.

연맹은 또 “최근 K리그의 개막 소식이 알려진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 OTT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뉴스에이전시 등이 중계권 구매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올해 3월 설립된 ‘K리그 미디어센터’ 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스포츠레이더에 K리그 전 경기의 중계방송 영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매 시즌 주요경기 78경기는 영문자막화해 해외 위성을 거쳐 송출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